

## News

### 국민은행, SK(주) 지분 전량매각...현금 5천억원 확보

연합뉴스

국민은행은 24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형태로 SK(주) 주식 175만75주(2.49%)를 외국계 기관 투자자에 처분...5천억원 상당의 현금을 확보  
2011년 SK(주) 지분 매입 당시 가격 2천억원에 비하면 3천억원가량의 차이...관계자, "금융시장 변동성 등을 고려해 안정적인 자본관리 차원에서 매각을 결정"

### 고의·중과실 없으면 보이스피싱 피해금 금융사가 배상

연합뉴스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금융회사가 배상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보이스피싱 수법과 수단이 지능화·고도화함에 따라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현재 전자금융법상 해킹 등으로 금융사고가 나면 금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보이스피싱 피해의 금융사 배상도 법적 근거를 마련

### 금융당국, 결국 수분양자 LTV 40%만 적용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결국 6·17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지역으로 묶인 수도권 무주택자 수분양자들에 대해 잔금 주택담보 대출비율(LTV)을 40%만 적용키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안양, 군포, 의왕 등의 지역은 아파트 입주 시 시세 기준인 잔금 대출을 LTV 40%로 제한해 자금력이 부족한 수요자는 집을 팔거나 전세를 내줘야할 것

### 내년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 10곳 선정...'제주銀' 제외

연합뉴스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 신한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KB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농협금융지주...시스템적 중요 은행: 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  
신한금융지주 소속 자회사인 제주은행이 빠져...금융당국,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따라 소규모 지방은행을 시스템적 중요은행 선정에서 제외"

### 보험약관 만들 때 법률 심의거쳐야...제3보험 의료 심의도 강화

연합뉴스

앞으로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상품 관련 기초서류를 만들거나 변경할 때 법률전문가나 준법감시인에게 사전 심의를 받아야...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또 제3보험(상해·질병·간병보험)에 기존에 취급하지 않던 새로운 보장 내용이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려면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거쳐야할 예정

###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설계사 고용보험 부담 안게 될까 '걱정'

비즈니스포스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특수고용직으로 확대하는 정부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설계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형보험사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  
보험설계사가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면 설계사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선도...대형보험사들 실적 악화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해 고용보험료 부담 더 크게 다가와

### 옵티머스 대표 등 출국금지...개인투자자 800여명 피해 우려

연합뉴스

대규모 환매 중단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 회사 펀드에 돈을 넣은 개인 투자자는 최소 800여명, 투자 자금은 2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  
NH투자증권 판매분 가운데 환매가 중단된 펀드 금액은 지난주 25·26호를 포함해 모두 약 680억원 규모로 늘어...NH투자증권은 펀드 판매분은 전체의 82%인 4천407억원

### 금융위, 증권사 콜차입 한도 8월까지 단계적 정상화

연합뉴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7월 중 증권사의 콜 차입 한도를 현행 수준(자기자본의 20%)으로 유지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8월부터는 기존 수준(15%)으로 복원할 계획"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화했다는 판단...다만, 은행권을 향해서는 "코로나19 영향 장기화에 대비해 대손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해 달라"고 당부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